

신라자산운용(주) 및 제니스투자자문(주)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(등록) 취소

— 제16차 금융위원회('26.9.23.) 조치 의결

1 조치배경

공모주 청약 대행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했으나 잔고 확인서에 기재된 투자 원리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민원이 다수 접수된 신라자산운용(주) 및 제니스투자자문(주)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,

인가(등록) 업무 미영위, 회계처리기준 위반,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 다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, 금융위원회는 '26.9.23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 인가(등록) 취소 및 임원 해임요구 등 조치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.

2 조치내용

[신라자산운용]

- ① (인가 및 등록취소) 인가업무 미영위, 최저 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에 따라 공모집합투자업 인가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*을 취소하고,

* 업무단위 : 특별자산 집합투자업(3-13-1), 전문사모 집합투자업(3-14-1)

- ② (과태료·과징금)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업무보고서 허위 공시, 주요 경영상황 등 미공시·미보고 등에 대해 과태료(1,494백만원)를 부과하고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(20백만원)을 부과하였습니다.

- ③ (임직원 제재) 회계처리기준 위반, 최저 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, 업무 보고서 허위 공시 등 각종 공시의무 위반 등에 대해 前 임원 해임요구 상당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 통보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.

[제니스투자자문]

- ① (등록취소) 등록업무 미영위, 최저 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에 따라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을 취소하고,
- ② (과태료)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업무보고서 허위 공시에 대해 과태료 (1,280백만원)를 부과하였습니다.
- ③ (임직원 제재) 회계처리기준 위반, 최저 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, 업무보고서 허위공시 등에 대해 前·現 임원 해임요구(상당 통보) 조치를 결정 하였습니다.

3 향후계획

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, 투자자문·일임업계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,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법규위반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·감독 및 엄정한 사후제재를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.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	책임자	과 장	김성진	(02-2100-2660)
		담당자	사무관	최미영	(02-2100-2673)
	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	책임자	국 장	최상두	(02-3145-7690)
		담당자	팀 장	오창화	(02-3145-7631)